

# “봉축, 가톨릭과의 공존·평화 상징으로”

## 서산주지협의회, 가톨릭 성지 해미읍성서 최초 연등축제

그동안 서산지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 지역이었지만 가톨릭 순교성지임을 고려해 봉축행사가 열리지 않았던 해미읍성에서 최초로 연등축제가 개최된다. 이웃종교인들이 한데 모여 불교와 가톨릭을 비롯해 한국사회에서 공존과 평화의 상징으로 행사가 진행한다는 취지다.

조계종 서산시주지협의회(회장 도신, 서광사 주지)는 4월 6일 “5월 9일 서산시민과 함께하는 2015년 연등축제를 해미읍성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적 제116호인 해미읍성은 1417년부터 1421년 사이에 축성된 조선초기의 대표적인 석성으로 충청도 지역의 군사방어를 담당했다. 성곽둘레는 1.8km, 높이 5m, 면적은 약 20만㎡으로 지역 대표 문화재다. 이곳에서는 조선후기에는 수많은 가톨릭 신자들이 희생됐으며 그로 인해 순례성지로 평가 받고 있다. 2014년 8월 프란체스코 교황 방한 시에 해미읍성을 순례하기도 했다.

해미읍성에서 열리는 연등축제는 문화 체험, 위령제, 노래자랑, 문화공연, 관불 법요식, 제등행렬 순으로 진행된다. 문화 체험은 다도체험과 전통떡 만들기 체험, 연꽃컵등 만들기, 다포에 민화그리기, 서산의 인물과 사찰, 문화재 소개 등을 체험한다.

또 서산시민과 학생, 불자들이 누구나 참여

### 5월 9일 성곽길 따라 제등행렬

### 국가 평안 기원한 종교 의미 강조

할 수 있는 노래자랑이 열리며 문화공연은 개그맨 김지호의 사회로 인기가수 정미화, 강경민, 박정식, 나은, 타악그룹 진명 등이 출연해 즐거움을 선사한다.

제등행렬은 법요식 후 오후 7시30분부터 진행되며 해미읍성의 성곽 1.8km 구간에서 실시된다. 해미읍성의 성곽을 따라서



발행지는 오색의 연등행렬은 그 어느 연등 행사에서도 볼 수 없는 새로운 아름다움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된다.

연등축제를 준비하는 전장사 주지 허정 스님은 “연등회는 한민족의 역사 속에 살아 숨쉬는 전통문화유산”이라며 “일반적으로 연등회 행사가 사찰 경내나 사찰 주변에

서 진행된 것과 달리 이번에는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해미읍성에서 열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해미읍성은 가톨릭 전래에서 순례자들이 나온 이웃종교의 순례지이기도 하지만 성 주변에 사방에는 미륵불을 세워 안녕을 기원한 미륵성지이기도 하다”며 “국가발전과 평화를 기원한 종교적인 의미를 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산시주지협의회 회장 도신 스님은 “가톨릭 신자들이 목숨을 잃은 자리에서 연등을 밝히는 것은 역사의 아픈 상처를 보듬으면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공존과 평화의 메시지로 의미가 깊다”고 밝혔다.

이어 스님은 “해미읍성은 서산시민만 찾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라며 “이곳에서 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연등축제를 열게 될 만큼 서산이 자랑하는 유령문화인 해미읍성과 무형문화재인 연등회가 창조적으로 만나 한국의 아름다움을 재발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 부안 개암사 산신탱화 점안식 및 산신대제

부안 개암사(주지 재안)가 전북불교 중흥과 전라북도, 부안군의 발전을 기원하는 올미년 봄 산신대제와 함께 산신탱화 점안식을 봉행했다.

개암사 산신대제는 지역민들과 함께 매년 봄과 가을에 개최하고 있다. 행사에는 선운사 초기불교승가대학원장 재연 스님과 학인 스님과 김종규 부안군수, 김춘진 국회의원, 군장병 등 2백여 대중이 동참했다.

산신대제에서는 육법공양을 시작으로 명종, 법고, 삼귀의, 반야심경, 발원문 낭독, 신왕경 독송, 축원, 청법가, 법어, 축하 공연 등이 진행됐다.

산신대제에 이어 진행된 산신각 후불탱



화 점안식에서 증명법사로 나선 재연 스님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연기과 무상의 진리를 바로알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불자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개암사는 극락교 인근에 원왕전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불사 모연 중에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광주불교聯, 행렬등 강습회 개최

광주불교연합회(회장 연광)는 4월 7일과 9일 2일간 광주불교회관 2층 법당에서 전통행렬등 강습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습회에는 광주지역 사찰과 불교단체, 합창단 등 60여 명이 동참했다. 사찰별도 목어, 운판, 복주머니, 풍경, 사각, 원 등 다양한 행렬등 제작이 시도됐다.

이날 강사로 나선 문영배 광주불교연합회 기획팀장은 “올해 봉축행사는 자신이 만든 등을 들고 행진에 참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습회는 7일 끝조만들기와 배접, 9일



색칠과 마감작업이 진행됐으며 강사에는 광주지역 전통등 만들기 단체인 빛고을만등회(회장 김병규)가 자원봉사로 참여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한국서 캄보디아 설 축제 즐겨요”

### 광주외국인복지센터, 4월 12일 ‘졸츠남 축제’ 열어



불교계가 운영하는 광주외국인복지센터(센터장 이주성)는 4월 12일 광산구 평동공단 내 육동공원에서 ‘캄보디아 새해 졸츠남 축제’를 개최했다.

‘졸츠남’은 캄보디아 설날로 캄보디아에서는 4월 졸츠남 기간동안 길거리에 국기와 불고기, 새해 복을 기원하는 현수막 등을 걸고 축제를 연다. 졸츠남에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그동안 떨어져 있던 가족들이 고향을 찾는다. 이와 함께 한국 설빔 문화처럼 새 옷을 사고 부모로부터 생활 필수품 등을 선물받기도 한다.

이날 캄보디아 설 행사에는 시냇 캄보디아 공동체 회장을 비롯해 주한 캄보디아 대사과 캄보디아 근로자와 가족 1천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애국가를 시작으로 캄보디아 불교의식, 인사말(광주불교연합회, 캄보디아 대사), 환영사(캄보디아공동체), 전통 음식, 전통 춤 및 캄보디아 다문화 여성 전통패션쇼, 놀이마당 등이 진행됐다.

또 회장 시냇, 부회장 시냇, 총무 소책, 문화 점 등 캄보디아공동체 임원에 대한 임명장이 전달됐다.

광주전남불교공동모금단체인 빛고을

나눔나무(상임이사 혜공)와 광주광역시, 광주외국인복지센터 등에서 후원한 이날 행사에 이주성 센터장은 “캄보디아의 근로자들이 한국생활에 대한 긴장감을 덜어주고, 새로운 일에 대한 활력을 갖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한국 전통문화, wonderful~!”

### 미국 청소년대사 23명, 선운사에서 불교문화체험 ‘화제’



미국 청소년대사 23명이 전북을 방문해 불교문화를 체험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의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선발된 이들은 4월 3일 고창 선운사에서 1박 2일간 템플스테이를 하며 예불, 108배, 발우공양, 참선, 명상 등의 한국전통 불교문화를 체험했다. 이번 미국 청소년 대사들의 방문은 미국 내 한국우호단체인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추진했다.

코리아 소사이어티(회장 마크민튼, 前 주한미국대사)는 1992년 LA에서 발생한 폭동 이후 한국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1993년 단체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코리아 소사이어티에서는 한미 양국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미래 지

도자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2010년부터는 매년 청소년 대사 방한을 추진해 한국의 전통문화 체험 위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한국 문화 속에 불교가 어떤 위상이지 알 수 있는 자리였다”며 “다양성을 존중하는 한국문화 기반에 불교가 자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오성호 선운사 템플스테이 팀장은 “우리 전통 곳곳에 스며있는 불교문화 체험을 통해 한국불교를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청소년 대사 일행은 이에 앞서 4월 3일 오전 전북도청과 전주 한옥마을을 둘러봤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청소년생명평화실천단 4기 출범

전북지역 청소년들이 생명평화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구성된 청소년생명평화실천단이 4기를 출범시켰다.

4월 4일 전북생명평화센터에서 열린 발대식에는 4기 단원으로 참석한 40여 학생들을 비롯해 완주 송광사 회주 도영스님,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라은희 파라미터 청소년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도영 스님은 격려사에서 ‘존해파평(尊海波平) 사자성어를 화두로 꺼내며 “바다도 존중받으면 파도도 평온해진다”며 생명평화 정신을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발대식 후 단원 학생들은 전북학생해양수련원으로 이동해 생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개암사에서 템플스테이를 진행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진안군 자원봉사센터, 릴레이 연탄나눔 협약

진안군 자원봉사센터는 4월 7일 진안군청 회의실에서 진안군 일대 릴레이 연탄나눔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엔 맺은 협약 내용은 3년 동안 연 1회씩 마이사탐사에서 4천장을 비롯해 종교단체, 일반단체, 개인 20팀이 2017년까지 총 2만1천장의 연탄을 불우 이웃에게 전달하겠다는 것이다.

진안군은 마이사탐사 주지 진성 스님과 월동준비 차원에서 진안군관 11개 읍면에 4천장씩 자비의 연탄을 전달해 왔다. 이날 진안군 이항로 군수는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데 앞장서는 마이사탐사 주지 진성



스님을 비롯해 여러 단체 및 개인 후원자들에게 감사 드린다”며 “릴레이 연탄나눔이 더욱 확산돼 소외 이웃들이 훈훈하게 겨울을 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

소중한 분들께 마음의 등불을 선물하세요 ~

### 자연향을 원료로하여 제작한 천연 향 초

## 숙양초 세트 · 밀납양초 세트

밀납양초 및 양삭양초는 그윽음이 없고 연소시간이 긴 장점이 있습니다.



양삭양초는 특유의 상쾌한 향과 달취효과로 잠lessness는 물론 머리를 맑게 합니다.

지리산 토종 풀을 생산하는 양봉원과 계약하여 독점으로 원료를 공급받고 있으므로 품질이 우수합니다. 프로폴리스 성분이 함유되어 벌레 등이 접근하지 않으며 실제 공기 정화도 뛰어 납니다.

· 구성 : 6개 · 가격 : 30,000원  
· 크기 : 높이 18cm x 지름 6cm

· 구성 : 6개 · 가격 : 30,000원  
· 크기 : 높이 18cm x 지름 6cm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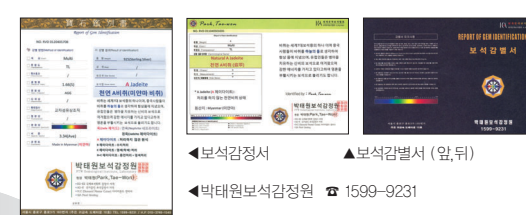
www.hyunbulshop.com

## 박태원보석감정원 천연A비취(玉)

비취는 세계 7대 보석중의 하나이며, 중국사람들이 비취를 하늘의 돌로 생각하여 항상물에 지냈으며, 유럽인들은 병마를 치유하는 신비의 보석으로 여겨왔으며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하여 영혼을 부활시키는 보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 비취는?

- ▶ 비취 경도는 6.5 ~ 7이다.
- ▶ 비취의 유일한 산지는 미얀마(버마) 뿐이다.
- ▶ 예로부터 신비의 돌이라 불리며, 성경과 불경에 최고의 보석으로 서술되고있다. 왕위를 상징하는 보석으로 중국의 국석이 되었다.
- ▶ 중국 명나라 이시진의(본초강목), 허준선생의(동의보감)에도 약적으로 기록.
- ▶ 아주대 오홍국 교수팀의 실험 결과 -
  - ▶ 원적외선 방출량 94% (신진대사 원활, 혈액순환 원활, 화상치료, 저혈압 고혈압 조정, 통증완화, 뇌세포 재생)
  - ▶ 음 이온 방출량 86% (음이온 : 세포활성화, 혈액정화, 피로회복, 자율신경안정, 면역력증가, 통증완화, 알러지 체질 개선)
  - ▶ 탈취율 90% 1시간 ▶ 향균성 85%
  - ▶ 대장균 감소율 83.6% ▶ 녹농균 감소율 86.3%
- ▶ 비취는 생리작용과 피부탄력에 영향을 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 ▶ 혈액 순환에 효과가 커서 정신을 맑게 해주면 독성을 중화하고 수면기능을 높임.
- ▶ 비취에는 A, B, C비취의 단계로 나뉜다.
  - ▶ A비취 : 광산에서 채굴한 천연원석을 가공.
  - ▶ B비취 : 수지처리 ▶ C비취 : 원석에 염색



가 비취 목걸이(진옥) 가액 ₩180,000원  
격 비취팔찌-상(연옥) 가액 ₩80,000원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3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